

농흉환자에서 흉막 박리술 후 폐의 팽창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, 흉부외과학교실^o
전평, 최규욱, 정경영^o 김길동^o

- 목적** 흉막 박리술은 만성 농흉의 중요한 치료방법이다. 흉막 박리술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술기이며, 그 후 폐가 팽창하지 않으면 폐 절제술도 필요하여, 처음부터 폐흉막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. 이에 흉막 박리술 후 폐의 팽창에 관계되는 요인을 살펴보고 수술전에 박리술 후 폐의 팽창 여부를 예측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.
- 대상 및 방법** 1988년부터 1992년 말 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농흉으로 흉막 박리술 후 폐가 절제술을 시행한 24예를 대상으로, 후향적인 조사를 하였다. 흉막 박리술 후 폐의 팽창이 잘된 경우(A군), 폐의 팽창이 미약한 경우(B군)와 폐가 팽창되지 않아 폐절제술을 시행한 경우(C군)의 방사선학적 소견을 비교하였다.
- 결과**
1. A군이 11예, B군이 9예, C군이 2예였다.
 2. 수술전 시행한 CT에서 각 군간의 벽측 흉막, 장측흉막, 흉막의 지방층의 두께가 A군에서 각각 $6.33 \pm 2.0\text{mm}$, $7.38 \pm 4.87\text{mm}$, $3.69 \pm 1.66\text{mm}$, B군에서 각각 $6.56 \pm 1.83\text{mm}$, $5.77 \pm 2.65\text{mm}$, $5.0 \pm 2.16\text{mm}$ C군에서 각각 $8.0 \pm 0\text{mm}$, $7.5 \pm 0.5\text{mm}$, $9.0 \pm 1.0\text{mm}$ 로 병측흉막과 장측 흉막의 두께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흉막외 지방층의 두께는 폐의 팽창이 전혀되지않은 C군에서 의미있게 두꺼워진 소견을 보였다.
 3. 흉막의 석회화는 A군에서 3예(27%), B군에서 6예(67%), C군에서 2예(100%)로 나타났으나, 각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 4. CT에서 흉막하 폐실질의 흉막에 거의 직각을 이루는 선상음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와 범위에 따라 심한경우, 경한경우, 전혀없는 경우로 분류 비교한 바, 전혀없는 경우의 팽창정도가 가장좋고 각 군간의 팽창 정도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.
- 결론** 흉막의 지방층의 두께, 흉막하 폐실질의 선상음영의 범위와 심도등이 각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박리술후 폐의 팽창여부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며, 폐의 실질 파괴정도와 같이 고려하면 폐흉막 절제술의 적응증을 잡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된다.